

청춘PD 청년CEO 양성 프로젝트 가동

남원시, 1차 사업
24일까지 6명모집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청춘PD 양성1차 사업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6명을 모집하고 매년 차수를 더해 양성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청년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과 지리산, 춘향테마파크, 남원관광지, 만인의총, 실상사를 비롯한 기존의 관광자원에 남원예촌, 소리명상관, 시립 김병중 미술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예코뮤지엄, 옛다솜이야기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남원관광지도노래일 등을 시설하는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춘PD 참여 대상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만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선발된 사람은 월185만원의 활동비 및 소정의 교육훈련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근무조건과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정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CEO 양성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5억2000만원을 들여 청년CEO를 위한 거주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에는 청년CEO의 거주시설로 카라반 10대를 지원하고, 청년CEO들은 일정기간 카라반 시설에 거주하면서 업체의 인프라를 공동활용해 창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들에게는 실제 사업화뿐만 아니라 판매 네트워크를 연결해 안정적인 단계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40여명의 청년 창업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관광과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국인 관광객 몰이 나섰다

임실군, 중국 에버투어와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이 관광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사인 에버투어(주)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심민 임실군수, 에버투어(주) 김서영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르면 임실군과 에버투어(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에버투어(주)의 활동을 지원하고, 에버투어(주)는 임실군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에버투어(주)는 남도 체험관광을 운영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해온 국내·외 전문 여행업체로 현재 4박 5일 일정의 중국인 관광객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군은 임실치

즈레마파크, 옥정호, 성수산, 필봉농악전수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중국인 관광객 몰이에 나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버투어(주) 김서영 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주요 이벤트를 집중 홍보해 다수의 중국인 관광객이 임실군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협약식에서 "옥정호, 성수산, 반려동물, 치즈테마파크 등 500만 관광객 시대 실현에 머지않았다며,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통해 다수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임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케팅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임실치즈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시티투어, 팸투어 등 각종 관광마케팅 활동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제281회 임실군의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22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6일 개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10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했다.

신대용 의장은 "민선 7기 새로 시작하는 일이나 진행중인 일들의 난관을 우수 천석(雨垂穿石)의 의지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헤쳐 나가 좋은 성과로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특히,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복지정책으로 어르신 복지만족도 증가

순창군 복지예산

2013년 150억에서

2018년 309억 증액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알뜰히 챙기며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2013년 노인복지예산이 150억 원에서 2018년 309억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율도 40.4%에서 59.2%로 늘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성장해 왔다. 특히 순창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자체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면서 만족도도 높아졌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이다. 농촌경로당이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고령노인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순창군이 자체 7억 2천만 원의 군비를 투자해 27개 마을을 대



농촌경로당이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고령노인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아 전체 마을 경로당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행복복지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371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간식비, 정부양곡적기지원을 통해 20억 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비품구입, 환경개선 등에 올해 7억 3천만원을 투입 사업이 진행 중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통해 각 마

을를 찾아 당뇨 교활알 등 건강실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치매안심 센터를 운영한다.

60세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사업도 진행 현재 5200여명이 혜택을 봤다. 경황숙주 군수는 "순창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순창에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실시

최근 일자리 수요 감안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도배·장판 기술자 양성

순창군이 최근 일자리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혀 지역 구직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이 이번에 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과정은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양성교육'과 '도배·장판 기술자 양성교육'이다.

소프트웨어 기초이론 및 기초코딩 이론 및 실습이 진행될 계획이다. 건축, 건설업 분야가 활기를 띠면서 도배·장판 등 건축 기술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도배·장판 이론 및 실습, 도배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 교육이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양성교육은 9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3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여성회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도배·장판 기술자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등 기술자 양성 맞춤형 교육 호응받고 있다.

양성교육은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 5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반인반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직장인반으로 나눠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군은 8월 3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각 과정당 1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에서 하고 있으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맞춤형 직업훈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군 경제교통과 전화 063-650-1326번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비산면지 약취 특별점검 실시

남원시에서는 대기환경개선 및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비산면지와 약취발생 사업장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이상고온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된 토사석채취장 등 비산면지발생사업장 10개소와 축사·폐기물관련 약취발생사업장 11개소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해 비산면지·약취발생 억제조치 이행여부 및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남원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비산면지·약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자체적인 저감조치 등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류장기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및 약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등 시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업체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